농촌지도조직체계의 변화에 따른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에 대한 인식

A Study on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Officers' Perception of Role Ambiguity According to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Administrative Systems

주대진* · 김진모**
Dae Jin Ju · Jin M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 Perception of role ambiguity according to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elected from 21 centers out of 156 centers. The subjects for study were 728 agricultural extension officers by the cluster sampling drawn from the sampled 21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in four clusters.

A survey questionnaire was utiliz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consisted of role ambiguity scale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role ambiguity scale was translated from the existing scale. Through a pilot test and final surve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scales were examin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 total 420 questionnaires out of 728 from 21 agricultural extension centers were returned. After data cleaning, 410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민간전문가. e-mail: jjudj76@korea.kr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농업생명과학연구원. e-mail: jimmy812@snu.ac.kr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role ambiguity among the local extension workers divided by four clusters. Especially, the degree of role ambiguity of restructur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ere more higher than other clusters, comparatively. Thus, the factors causing the role ambiguity to agricultural extension officers need to be measured it in-depth.

주요어(key words): 농촌지도공무원(Extension Specialist),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지방행정체제(Agricultural Administrative System)

1. 서 론

지난 1994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1997년에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농촌지도체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97년 지방화 이후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각각 소속 도와 시・군 지자체의 완전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기존의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결고리는 거의 단절되고 말았다. 아울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내 농업행정과 지방농촌지도사업의 추진주체인 지역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는 지역이 차츰 증가하였다.

지방직 전환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사업이 추진되고, 지방비 확보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으며, 시・군 간 인사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지도사업이 좌우되고 있고, 행정업무 과다로 본래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어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등 지방직 전환 이후 전체적으로 지도사업이 퇴보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조영철 & 송용섭, 2003).

이러한 농촌지도체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으나 농촌진흥청을 위주로 당위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농촌지도 추진체계의 변화로 인해 지방농촌지도공무원이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김진모 & 이택선, 2004a; 2004b).

역할모호성은 조직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거나 궁극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Karatepe & Sokman, 2006). 따라서 지방화로 인한 우리나라 농촌지도기관에 나타난 갑작스런 변화로 말미암아 지방농촌지도공무원들이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역할모호성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조직구성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박수진, 2006; Dubinsky & Harley, 1986), 농업인과 직접 면대면 접촉을 취하여 왔던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다면 농촌지도사업 수행에 혼란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변화도 수반되면서 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이 강해졌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재 역할모호성 수준을 구명하고, 아울러 현재의 역할모호성이 지도공무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내 농업행정조직과 농촌지도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지방행정구역체제에 따른 시군유형과 농촌지도조직 업무 추진체계가 변화된 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역할모호성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여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 수준 및 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는 작업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 농촌지도체계 및 업무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이 최초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것은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의 제정이 계기이며,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식 농촌지도체계를 갖추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기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절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농촌진흥법(1995)을 개정하면서 농촌지도사업 체계의 법적 지위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윤여학, 1998).

지금까지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촌진흥청(국가)과 지방 농촌지도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간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으며, 특히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직무범위(권한)마저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었다. 그런데 농촌진흥법 개정 법률에서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로 인해 1997년 1월에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이 중앙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지방 농촌지도기관의 인사・재정・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의 농촌지도조직과 농업행정조직이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윤여학, 1998). 특히 상하위 지도기관 간에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류 및 의사소통의 결여는 우리나라 160여 개 농업기술센터의 폐쇄적인 지도사업 수행과 지도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농업인에 대한 지도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지적받기도 하였다(윤의영, 2006).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듯 2010년 전체 시군농업기술센터 160개소 중 지역의 농업행정조직의 업무와 기능적 통합이 이루어진 농업기술센터가 52개소에 이를 정도로 농촌지도체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13개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업무가 농업행정조직으로 이관되기도 하였다(〈표 1〉 농업기술센터 업무변화 현황 참조).

〈표 1〉 농업기술센터 업무변화

시도별	농정업무 센터통합		지도업무 이관 (센터 → 시·군 본청 농업행정)	
	완전통합	부분통합 (농정 이관)		
계	**45**	**7**	**13**	
경 기	파주, 양주	용인, 김포	화성	○ 화성 : 수출지원('09.7)
강 원	춘천, 원주, 동해, 속초, 평창,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강릉, 홍천, 횡성, 정선, 고성	○ 고성 : 축산('08.9)
충 북	괴산	-	-	-
충 남	-	-	-	-
전 북	김제, 완주, 정읍, 무주	-	-	-
전 남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무안		완도, 진도, 강진, 화순	○ 화순 : 농업경영('08.5)
경 북	김천, 영주, 영천, 경산, 봉화, 울릉	영양, 청도	울진, 칠곡	※ 청도 : 센터 내 농정과 군청으로 이관('09.3)

경 남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합천	-
제주도	-	-	-	-
특・광역시	달성	옹진	-	-

자료: 농촌진흥청. (2009). 2009년 농촌지도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

이러한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지방농촌지도사업의 수행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달라진 업무수행 행태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의 직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송기진(2003)에 따르면, 지도직의 지방직 전환 이후 종합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농촌지도사업의 영역 중 경제작물이나 지역 특산물 육성이 강화되었으며, 단체장의 선거 공약사항 추진 및 행사참여로 농촌지도사업의 본연의 업무와 농민 애로사항 요구가 잘 해결되지 않아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표 2〉 지방화 이후 농촌지도사의 주요 업무변화 요약

개념적 요소	세부항목	주요 업무
기술 지원	지도기획	▫ 업무 중요도: 자료작성 > 지도사업 계획 > 예산・회계 > 농업홍보 > 행사준비 > 기타
	교육훈련	▫ 향후 육성해야 할 농업인 단체: 작목별연구회 > 농업경영인 > 농촌지도자 > 여성농업인 > 4-H후원회 > 4-H회원, 생활개선회 등 ▫ 지방직 이후 자체 추진교육: 작목별 집합교육 > 여름철 순회교육 > 마을별 집합교육 > 야간순회교육 > 없다 ▫ 농업인 교육시 중점 추진내용: 유통정보 > 재배기술교육 > 견학위주 교육 > 식량증산 교육 > 기타 ▫ 교육 전달방법: 견학위주 > 빔프로젝트 > 집합교육 > 인터넷 교육 > 기타
	경영정보	▫ 경영상담업무 중요도: 가격 및 유통정보 > 작목별 경영설계 > 경영컨설팅 > 전산교육 > 기타
	생활개선	▫ 생활개선업무 중요도: 농촌소득원사업 > 여성인력 육성 > 식생활개선 > 주거환경 개선 > 기타
기술 보급	농업기술	▫ 기술 보급 업무 중요도: 지역특산물 및 특작 > 채소과수 > 농업개발센터 > 식량증산 > 현장애로기술 > 기타 > 축산 ▫ 지방화 이후 자체 기술보급 업무: 특산물 브랜드화 > 수출육성 > 소득작목 발굴 > 특화작목 육성
	환경농업	▫ 업무 중요도: 품종보급 > 재배기술 > 병해충방제 > 보고자료 > 기타 > 수량증대
	경제작물	▫ 농가의 상담요청 집중도: 병해충진단・방제 > 신규작목재배기술 > 시범사업 > 농업시책 > 기타
	축산기술	▫ 축산기술 직무의 어려운 점: 축산물 브랜드화 > 가축질병방제 > 가축사양관리 > 기타
	기술개발	▫ 기술개발 담당업무 개편 요구: 작목별 편성 > 업무분야별 편성 > 현행 유지 > 기타
	현장애로	▫ 현장애로기술 시범사업 농가 도움 여부: 조금 도움 > 많음 도움 > 거의 같다 > 도움 안됨 > 기타
시험 연구	시험연구	▫ 연구소/시험장 결과 도움 여부: 농업인 > 모두 > 지도사 ▫ 주요 추진 직무: 재배방법 개선 > 품종개량 >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 병충해 체계적 방제 > 기타 ▫ 자체 연구사업 내용: 병충해 체계적 방제 > 품종개량 > 재배방법 개선 >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자료: 송기진. (2003).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2.2. 역할모호성의 개념 및 특징

Kahn, Wolfe, Quinn, Snoek, & Rosenthal(1964)은 역할모호성이 두 가지 입장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역할수행자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의 대상에 따라서 직무자체나 목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단 등에 관한 정보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과 역할수행자의 사회, 정서적 국면과 연결된 모호, 즉 타인의 눈에 비친 역할수행자 자신의 입장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역할모호성이 높게 지각된 구성원일수록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며, 자신감이 저하됨을 발견하였다(이채원, 1995).

Rizzo, House, & Lirtzman(1970)은 역할모호성을 '조직구성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결핍, 조직목표의 불명료성, 역할수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무지, 조직의 변화에 관한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정책이나 지침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의 상황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역할모호성이 결과나 반응의 모순성에서 오는 모호성과 행동조건의 불명료성에서 오는 모호성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먼저 '결과나 반응의 모호성'이란 역할점유자의 역할행위에 대한 결과나 역할전달자의 반응이 모순되게 나타남으로써 피드백을 받는 역할점유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의미하고, '행동조건의 불명료성'은 역할점유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조직목표가 불분명하여 역할점유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채원, 1995).

또한, Singh(2000)은 역할모호성을 야기하는 불확실성이란 자기 책임의 범위, 자기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 행동들, 다양한 역할행동에 관한 역할 부여자의 기대, 자기 자신의 목표, 자기 자신, 역할집합(role set),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증대를 얻기 위한 자기 자신의 행동

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정의하면, 농촌지도 환경 및 체계의 변화로 인해 농촌지도공무원이 자신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조직목표가 불분명하여 역할수행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조직구성원들이 역할모호성을 겪게 되는 상황 또는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 조직의 변화를 수반하는 조직의 빠른 성장, 사회적 요구에 의한 빈번한 기술의 변화, 상호 의존성을 교란하는 빈번한 인사이동, 조직의 투입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조직환경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박수진, 2006).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은 지방직 전환 이후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역할모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농촌지도기관이 농업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행정에 지도기능이 이관되는 등 농촌지도업무 추진체계가 변화된 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지도공무원이 역할모호성을 겪게 되면, 예를 들어, 농업인 상담을 수행하는 농촌지도공무원은 농업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도조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직무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어 내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기와 자신감을 저하시켜 몰입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면, 역할모호성이 낮으면 업무수행의 혼란을 줄여 조직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2.3.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만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는 역할모호성을 역할갈등과 더불어 역할인식의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하였으며, 최근에는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하위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김진모 & 이택선, 2004a).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역할인식의 구성요소로 간주한 측면에서 임상봉(1988)은 Rizzo 등(1970), House & Schuler(1983)의 역할인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7개의 측정문항을 추출하여 총 259명의 농촌지도사에게 역할모호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역할모호성 점수(평균 16.97, 표준편차 4.32)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5점 환산평균 2.42) 농촌지도공무원으로서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할모호성은 연령과 근무경력, 지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 성격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80년대 말의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들은 근무경력과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즉 지도사업 수행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고유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방화 이후 이희을과 정영만(1999)은 "농촌지도요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Ivanceivich와 Matterson이 개발한 스트레스 진단표(SDS)를 응용하여 부산・경남지역 21개 시・군의 농촌지도요원 전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도요원의 직무스트레스(역할과중, 역할갈등, 역할모호성)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에 응답한 462명을 대상으로 평균을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서 역할과중(평균 3.23, 표준편차 0.528)과 역할갈등(평균 3.05, 표준편차 0.686)은 높고, 역할모호성(평균 2.83, 표준편차 0.749)은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 지각수준

은 낮고, 대체로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두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지도요원의 역할모호성 인식의 측정 결과의 차이(5점 환산평균 2.42 → 2.83)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조사 대상, 상이한 측정도구로 인한 응답자 반응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편차(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화 이후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 인식이 높아졌을 개연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지방농촌지도기관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진흥기관은 중앙의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지도기관으로 9개의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160개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2009년 9월 현재 전국의 농촌지도공무원은 4,613명이다. 그중 9개 도농업기술원에 232명, 나머지 4,290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전수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집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 모집단인 전국의 160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방행정구역체제 구분에 따라 특·광역시, 일반시, 도농복합시와 농촌(군 단위)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농정통합지역을 제외한 특·광역시와 일반시는 각각 7개소와 9개소로 비율이 낮아 개별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특·광역시 및 일반시'로 통합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중 농업행정과 통합되었거나 농업행정기관으로 지도업무가 이

관된 지역을 별도의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 농업행정과 통합지역(64개소)의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러한 지방행정구역 구분 체계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조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의 농업기술센터 4개소(81명)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집단의 구분 및 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모집단의 집단 분류

구분	특광역시/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		농정업무와 통합지역/지도업무 이관 지역	
경기도 (21)	성남 9 의정부 7 시흥 13	수원 8 안산 10	고양 20 광주 28 남양주 34 안성 41	이천 37 평택 40 포천 36	양평 29 여주 29	가평 24 연천 21	파주 36 용인 34 양주 31 김포 29	화성 45
강원도 (18)	태백 6		삼척 24		영월 25	철원 22	동해 10 춘천 29 원주 33 속초 8 평창 21 화천 19 양구 15	강릉 33 홍천 29 횡성 26 정선 17 고성 19 양양 20 인제 20
충청북도 (12)	청주 15		제천 28	충주 35	단양 21 보은 24 영동 24 옥천 25	음성 24 증평 10 진천 23 청원 33	괴산 29	
충청남도 (16)	계룡 10		공주 30 천안 43 논산 36	아산 37 보령 32 서산 34	금산 31 당진 35 부여 36 서천 32 연기 28	예산 33 청양 28 태안 29 홍성 31		
전라북도 (14)	전주 13		군산 32 남원 44	익산 43	고창 34 부안 31 순창 29	임실 28 장수 26 진안 28	김제 46 정읍 37 무주 22 완주 32	

전라남도 (21)					고흥 33 구례 27 담양 24 보성 32 영광 25	영암 28 장성 31 장흥 24 함평 27 해남 32 신안 30	광양 25 나주 32 여수 36 순천 27 곡성 20	강진 25 완도 23 화순 30 진도 14 무안 21
경상북도 (23)			포항 41 경주 43 구미 33	문경 34 안동 46 상주 47	고령 23 군위 24 성주 28 영덕 17	의성 40 청송 20 예천 31	김천 39 영주 34 영천 32 경산 34 청도 22 울릉 7 봉화 26 영양 20	울진 24 칠곡 25
경상남도 (20)			양산 18		의령 26		거제 19 거창 30 고성 28 김해 24 남해 26 마산 26 밀양 19 사천 22 산청 34	진주 42 진해 8 창녕 24 창원 19 통영 23 하동 29 함안 31 함양 27 합천 30
특광역시 (11)	서울 23 부산 28 대구 26 인천 23	광주 26 대전 31 울산 32			기장 7	강화 32	달성 24 옹진 22	
계 (%)	16 (10.3)	361 (8.6)	26 (16.7)	916 (21.7)	50 (32.1)	1354 (32.1)	64 (41.0)	1663 (39.5)

또한, 표집방법으로 비례군집표집을 실시하였다. 군집표집은 모집단을 소집단(군집)들로 나누고, 일정수의 소집단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소집단내의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때 집단을 몇 개로 구분할 것이며, 집단 간 규모의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별 규모에 따라 비례 또는 비비례로 표본수를 결정한다(김현철, 1999). 이 연구에서 표본수는 집단별 규모(기관수 및 인원수)에 따라 비례로 결정하여 최종 설정된 표집 규모는 특·광역시 및 일반시 2개소, 도농복합시 4개소, 군 단위 7개소, 농

업행정과 통합지역 8개소이다.

이에 따라 4개 집단에 대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먼저 특 · 광역시 및 일반시에서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도농복합시에서는 이천시, 논산시, 서산시, 상주시농업기술기술센터를, 군 단위에서는 여주군, 음성군, 의성군, 장성군, 예천군, 해남군, 강화군농업기술센터를, 농업행정업무와 통합지역은 양주시, 괴산군,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 김천시, 화성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하였다(자세한 표집 대상 및 인원은 〈표 4〉 참조).

〈표 4〉 표집 대상 및 인원

구분		특광역시/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	농정업무와 통합지역/지도업무이관 지역
모집단		16개소 (361명)	26개소 (916명)	50개소 (1,354명)	64개소 (1,663명)
적정 표집규모					
	표집 대상 기관(정원)	광주(26) 대전(32)	이천(39) 서산(34) 논산(36) 상주(47)	여주(31) 예천(40) 음성(25) 해남(32) 의성(27) 강화(38) 장성(40)	양주(31) 정읍(39) 괴산(33) 김천(39) 김제(46) 화성(43) 완주(29) 무주(22)
	소계	2개소 (41명)	4개소 (103명)	7개소 (153명)	8개소 (188명)

3.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직제, 근무경력, 학력, 직위, 직제, 현재 담당업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측정할 설문지는 Rizzo, House,

& Lirtzman(1970), House & Rizzo(1972)이 개발한 역할모호성 및 역할인식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채원(1995), 이봉섭(1991)의 도구를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다(이채원, 1995).

예비조사에서는 Rizzo 등(1970)이 제시한 역할모호성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채원(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Rizzo 등(1970)이 개발한 역할모호성 측정도구는 반응의 모호성 4문항과 행동조건의 불명료성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14문항으로 응답자 자기보고형식의 7점 리커트 형식의 설문이며, 총 4문항이 부정문항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Rizzo 등(1970)의 7점 척도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역할모호성 측정문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두 부정형 문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측정요인의 응답 값이 높게 나타날수록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 전체 신뢰도는 0.811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반응의 모호성'이 .734, '행동조건의 불명료성'이 .797로 나타났다. 문항의 변별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4~7번 문항을 제외한 각 문항은 해당 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변별도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요인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 요인회전방식으로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고,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에 House & Rizzo (1972)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를 살펴본 결과 Rizzo 등(1970)에서 제시한 역할모호성 측정도구에서 행동조건의 불명료성을 측정하던 10개 문항을 6문항(5~7, 9번 문항은 삭제)으로 축소하여 '업무의 모호성'

으로 명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도구의 5~7, 9번 문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의미가 불분명한 4번 문항도 제외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 결과 문항 전체 신뢰도는 0.717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는 '반응의 모호성'이 .590, '업무의 모호성'이 .694로 나타났다.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적재값은 모두 해당 영역에 대하여 0.3 이상이었으며, 이들 2개 요인은 역할모호성을 약 44.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2010년 4월에 경기도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후 본조사는 우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앞서 선정한 21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설문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였고, 해당 기관장 또는 담당자(지도기획의 서무담당)에게 표지, 질문지, 반송봉투가 포함된 설문패키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728부를 배포하여 420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57.7%). 이 중 불성실응답 10부를 제외한 총 41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집단별로 관찰변인의 수준이 집단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가를 구명하고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집대상 기관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96.2%)와 완주시(86.2%), 양주시(83.9%) 농업기술센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반면 화성시(27.9%), 김천시(30.8%), 강화군(36.8%) 농업기술센터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는 조사기간 중 경기권 및 충청권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축산관련 담당자들의 방역관련 출장으로 설문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또한,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농촌지도사 또는 생활지도사)의 경우에는 조사지가 본소에서 상담소에 이르는 과정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집대상 기관별 응답율 현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설문 대상기관 현황 및 응답율

조직특성	기관명	기관 정원	응답자 수	응답율
특·광역시 및 일반시 (2개소)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26	25	96.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32	18	56.3
도농복합시 (4개소)	이천시농업기술센터	39	23	59.0
	서산시농업기술센터	34	26	76.5
	논산시농업기술센터	36	28	77.8
	상주시농업기술센터	47	33	70.2
군 단위 (7개소)	여주군농업기술센터	31	18	58.1
	음성군농업기술센터	25	17	68.0
	의성군농업기술센터	27	14	51.9
	장성군농업기술센터	40	21	52.5

군 단위 (7개소)	예천군농업기술센터	40	29	72.5
	해남군농업기술센터	31	22	71.0
	강화군농업기술센터	38	14	36.8
농업행정과 통합지역 (8개소)	양주시농업기술센터	31	26	83.9
	괴산군농업기술센터	33	14	42.4
	김제시농업기술센터	46	18	39.1
	완주시농업기술센터	29	25	86.2
	정읍시농업기술센터	39	15	38.5
	김천군농업기술센터	39	12	30.8
	화성시농업기술센터	43	12	27.9
	무주군농업기술센터	22	10	45.5
계	21개소	728	420	57.7

유효 응답자 41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304명(74.1%), 여자가 106명(25.9%)으로 나타났다. 직제를 보면 농촌지도직이 360명(87.8%), 생활지도직이 50명(12.2%)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1~50세, 31~40세, 51세 이상, 3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을 보면, 10년 이하가 136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11~20년 사이, 20~30년 사이, 10~20년 사이의 순이었다. 학력을 보면, 응답자들의 70% 이상이 대졸이었고, 석사 59명(14.4%), 박사 6명(1.5%)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위를 보면, 일반지도사가 244명(59.5%)이었고, 실제 업무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계장(혹은 상담소장)이 141명(34.4%)이었다. 아울러 중간관리자인 과장(또는 담당관) 23명과 소장 2명도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유효 응답 농촌지도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

(n=410)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04	74.1
	여자	106	25.9
직제	농촌지도직	360	87.8
	생활지도직	50	12.2
연령	30세 이하	30	7.3
	31~40세	128	31.2
	41~50세	150	36.6
	51세 이상	102	24.9
근무 경력	10년 이하	136	33.2
	11~20년	110	26.8
	21~30년	95	23.2
	31년 이상	69	16.8
학력	고졸	27	6.6
	초대졸	30	7.3
	대졸	288	70.2
	석사	59	14.4
	박사	6	1.5
직위	일반지도사	244	59.5
	계(상담소)장	141	34.4
	중간관리자(과장 또는 담당관)	23	5.6
	최고관리자(소장)	2	.5

4.2. 농촌지도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차이

역할모호성 인식 측정문항 중 1~3번은 반응의 모호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4~9번은 업무의 모호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역할모호성 측정

문항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두 부정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도구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므로 각 문항별 응답 값이 높게 나타날수록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도공무원이 인식하는 역할모호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역할모호성 인식에 대한 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은 24.75(5점 환산 평균 2.75)로 '보통'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반응의 모호성이 7.67(5점 환산 평균 2.56)로 '보통' 수준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업무의 모호성은 19.55(5점 환산 평균 3.26)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반응의 모호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도조직 내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업무의 모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 업무도 모호한 특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이 인식하는 역할모호성

(n=410)

구 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5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역할모호성		410	15	37	24.75	2.75	3.206
하위요인	반응의 모호성	410	3	14	7.67	2.56	1.526
	업무의 모호성	410	12	29	19.55	3.26	2.575

이어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역할모호성 수준을 살펴보면, 성별과 직제, 학력에 따른 역할모호성 인식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나 평균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직위에 따른 역할모호성을 보면, 일반지도사가 2.79점, 계장(또는 상담소장)이 2.7점,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2.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위가 높을수록 역할모호성 인식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직위에 따른 역할모호성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역할모호성과 하위요인인 반응의 모호성에 대한 F값이 각각 4.624, 11.771로 나타나 p〈 .01의 수준에서 직위별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하위요인의 업무의 모호성에 대한 F값이 1.1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지도사와 계장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관리자 이상 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모호성은 일반지도사가 계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 직위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차이

(n=410)

구 분			빈도	평균	5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역할모호성		일반지도사	244	25.13	2.79	3.317	4.624**			
		계(상담소)장	141	24.30	2.70	2.915		*		
		관리자 이상	25	23.64	2.63	3.213				
하위요인	반응의 모호성	일반지도사	244	7.95	2.65	1.516	11.771***			
		계(상담소)장	141	7.33	2.44	1.427		*		
		관리자 이상	25	6.88	2.29	1.536		*		
	업무의 모호성	일반지도사	244	19.71	3.28	2.645	1.197			
		계(상담소)장	141	19.33	3.22	2.449				
		관리자 이상	25	19.20	3.20	2.550				

* : P<0.05, ** : P<0.01 *** : P<0.001

연령에 따른 역할모호성을 보면, 30세 이하가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역할모호성이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연령에 따른 역할모호성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역할모호성과 하위요인인 반응의 모호성에 대한 F값이 각각 3.462, 9.446로 나타나 p〈 .05의 수준에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 집단과 타 집단 간의 역할모호성 및 하위요인인 반응의 모호성의 측정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낮은 연령대에서 역할모호성이 더욱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의 업무의 모호성에 대한 F값이 1.1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연령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차이

(n=410)

구 분			빈도	평균	5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역할모호성		30세 이하	30	26.07	2.90	2.728	3.462*				
		31~40세	128	25.11	2.79	3.451					
		41~50세	150	24.57	2.73	3.193		*			
		51세 이상	102	24.20	2.69	2.905		*	*	*	
하위요인	반응의 모호성	30세 이하	30	8.50	2.83	1.358	9.446***				
		31~40세	128	7.95	2.65	1.562					
		41~50세	150	7.65	2.55	1.466		*			
		51세 이상	102	7.12	2.37	1.430		*	*	*	
	업무의 모호성	30세 이하	30	20.33	3.39	2.264	1.660				
		31~40세	128	19.73	3.29	2.796					
		41~50세	150	19.31	3.22	2.583					
		51세 이상	102	19.44	3.24	2.319					

* : P<0.05, ** : P<0.01, *** : P<0.001

근무기간에 따른 역할모호성을 보면,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역할모호성이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의 하위요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근무기간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차이

(n=410)

구 분			빈도	평균	5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역할모호성		10년 이하	136	25.34	2.82	3.389	3.462**			
		11~20년	110	24.65	2.74	3.358				
		21~30년	164	24.34	2.70	2.877		*	*	
하위 요인	반응의 모호성	10년 이하	136	8.14	2.71	1.492	14.772***			
		11~20년	110	7.77	2.59	1.572				
		21~30년	164	7.22	2.41	1.397		*	*	
	업무의 모호성	10년 이하	136	19.86	3.31	2.824	1.617			
		11~20년	110	19.30	3.22	2.492				
		21~30년	164	19.46	3.24	2.397				

* : P<0.05, ** : P<0.01, *** : P<0.001

마지막으로 지방행정구역체제와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군 집표집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지역행정구역체제 및 농촌지도기관 특성에 따른 4개 집단별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을 보면, 농업행정과 통합(또는 이관)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2.83(5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광역시 및 일반시가 2.79(5점 환산 평균), 도농복합시가 2.70 (5점 환산 평균), 군 단위가 2.69(5점 환산 평균)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반응의 모호성은 농업행정

과 통합(또는 이관)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2.68(5점 환산 평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농복합시와 군 단위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각각 2.52(5점 환산 평균), 특・광역시 및 일반시가 2.57(5점 환산 평균)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의 모호성은 특・광역시 및 일반시가 3.38(5점 환산 평균)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행정과 통합(또는 이관)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3.35(5점 환산 평균), 도농복합시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3.19(5점 환산 평균), 군 단위가 3.17(5점 환산 평균)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지방행정구역체제에 따른 역할모호성의 차이

n=410

구 분			빈도	평균	5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역할모호성		특광역(일반)시	43	25.09	2.79	3.243	4.866***				
		도농복합시	97	24.32	2.70	3.475					
		군단위	132	24.17	2.69	3.010					
		농정과 통합지역	138	25.51	2.83	3.045			*	*	
하위요인	반응의 모호성	특광역(일반)시	43	7.14	2.38	1.505	5.108**				
		도농복합시	97	7.55	2.52	1.614					
		군 단위	132	7.55	2.52	1.378					
		농정통합지역	138	8.04	2.68	1.537		*		*	
	업무의 모호성	특광역(일반)시	43	20.28	3.38	2.594	5.754**				
		도농복합시	97	19.16	3.19	2.726					
		군 단위	132	19.04	3.17	2.438		*			
		농정과 통합지역	138	20.08	3.35	2.456			*	*	

* : P<0.05, ** : P<0.01, *** : P<0.001

한편, 우리나라 지역행정구역체제와 농촌지도기관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역할모호성과 역할모호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의 모호성, 업무의 모호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값이 각각 4.866, 5.108과 5.754로 나타나 $p < .01$의 수준에서 각 집단별로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에서 도농복합시와 군 단위 집단에서 농업행정과 통합된 지역의 집단과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는데, 농업행정과 통합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다른 집단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보다 역할모호성을 상대적으로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광역시 및 일반시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공무원 집단은 도농복합시와 농업행정과 통합된 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집단과 반응의 모호성에서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행정구역체제 및 지도기관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 및 하위요인별 인식에서 농업행정과 통합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지방행정구역체제 분류에 따른 특·광역시 및 일반시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응답값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4.3.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 인식에 대한 논의

임상봉(1988)의 연구에서 1980년대 말의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의 역할모호성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5점 환산평균 2.42) 농촌지도공무원으로서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고, 지도사업 수행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고유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희을 & 정영만(1999)의 연구를 통해 1990년대

말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의 역할모호성은 높지 않았으며(평균 2.83, 표준편차 0.749), 대체로 직무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두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지도요원의 역할모호성 인식의 측정 결과의 차이(5점 환산평균 2.42 → 2.83)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지방화 이후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 인식이 높아졌을 개연성은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2010년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 인식은 '보통'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5점 환산 평균 2.75), 역할모호성의 하위요인 중 업무의 모호성은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5점 환산 평균 3.26). 즉, 지역의 농촌지도공무원들은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계획 수립과 업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행정과 기능상의 통합 또는 흡수가 이루어진 지역과 농가인구의 감소로 지도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도시형태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도농복합시와 군 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역할모호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방화 이후에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이 높아졌으며, 농촌지도기능이 약화되는 도시권이나 농촌지도체계상의 변화가 나타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이 타 지역보다 역할모호성이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모호성 인식은 성별, 직제, 학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지만 직위가 높아질수록 연령과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역할모호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지도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줄이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 농촌지도체계의 변화로 인해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변화도 수반되면서 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이 강해졌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방행정구역체제와 농촌지도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역행정구역체제에 따라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단위로 구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관 특성으로 농업행정과 통합된 지역의 총 4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 기관수에 비례하여 추출한 표본을 전수조사는 군집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지역에서 업무에 대한 반응을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여 지도조직의 관리자나 상사 및 동료로부터 피드백이 비교적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 지역에서 지도사업 관련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인식도 보통 이상 수준으로 지도사업 계획과 지도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체제 유형과 농촌지도기관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역할모호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도농복합시나 군 단위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보다 광역시 및 농업행정과 통합지역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할모호성을 겪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의 농촌지도기관 및 지도사업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역할모호성 인식 수준이 '보통' 이하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특정 집단(광역시, 농업행정업무와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원

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촌지도사업의 수행 주체인 농촌지도공무원들에게 역할모호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이 인식하는 역할모호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도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활동과정에서 관리자(또는 상사)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기관의 미션과 비전, 핵심과제 등 전략기획 과정의 도입을 통해 기관의 농촌지도사업의 기획 및 수행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측정한 역할모호성 수준은 응답자들의 인식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모호성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의 역할모호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양적 조사의 한계를 심층인터뷰와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보완하여 우리나라 농촌지도공무원에게 역할모호성을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진모, & 이택선. (2004a). 농촌지도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이론적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11*(1), 21-36.

김진모, & 이택선. (2004b). 농촌지도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환경 및 역할인식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4), 73-87.

김현철. (1999). *표본의 추출과 분석*. 교육과학사.

농촌진흥청. (2009). *2009년 농촌지도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 수원: 농촌진흥청.

박수진. (2006). 은행원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기진. (2003).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여학. (1998). 행정개혁과 농촌지도사업체제의 변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5*(2), 187-192.

윤의영. (2007). 농촌지도기관 간 연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4*(1), 1-28.

이봉섭. (1991).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채원. (1995). 의료사업가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을, & 정영만. (1999). 농촌지도요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6*(1), 25-34.

임상봉. (1988). 농촌지도사의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영철, & 송용섭. (2003). 농촌지도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지방 농촌지도공무원의 인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4), 87-98.

Dubinsky, A. J., & Hartley. S. W. (1986). A Path-Analytic Study of a Model of Salesperson Performance.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ervice*, *14*(1), 36-46.

House, R. J., & Rizzo, J. R. (1972). Role Conflict and Ambiguity as Critical Variables in a Mod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7*, 467-505.

House, R. J., & Schuler, R. S. (1983). Role Conflict and Ambiguity Scales Reality or Artifa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2), 334-337.

Kahn, R. L., Wolfe, D. M., Quinn, R.,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New York: Wiley.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 150-163.

Singh, J. (2000). Performanc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frontline employees in service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64*, 15-34.

논문투고일: 2012. 5. 8
1차수정일: 2012. 5. 23
2차수정일: 2012. 6. 5
게재확정일: 2012. 6. 15